

브라질, 바이오디젤 생산 초과달성

Petrobras, 2008년 880만리터 생산 ... 포르투갈과 공동 유럽 공략

Petrobras의 바이오디젤 공장에서 2008년 생산량이 목표치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 에너지관리국(ANP)에 따르면, 브라질 국영에너지기업인 Petrobras는 북동부 바이아의 칸테이아스와 세아라의 키사다에서 가동하고 있는 바이오디젤 공장의 2008년 생산량이 목표치인 800만리터를 10% 초과한 880만리터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Petrobras의 자회사인 Petrobras Bioenergy가 운영하고 있는 칸테이아스와 키사다 공장 바이오디젤 생산능력은 각각 5700만리터에 달하며, 중동부 미나스제라이스의 몬테스 클라로스에 No.3 공장을 건설할 예정으로 총 생산능력이 1억7000만리터로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Petrobras는 2008년 10월 포르투갈의 Galp Energia와 바이오디젤 공동개발 협정을 체결하고 유럽시장 공략도 서두르고 있다.

Petrobras와 Galp Energia는 50대50으로 합작회사를 설립한 뒤 양국에서 채유식물과 동물성 지방을 이용해 바이오디젤 생산할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질산 바이오디젤의 원료는 피마자, 해바라기, 콩 등 채유식물로 앞으로는 동물성 지방과 튀김용 기름 찌꺼기 등을 이용하는 방식도 개발할 예정이며 2012년까지 15억달러를 투자해 바이오디젤 생산능력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브라질의 바이오디젤 생산능력은 총 30억리터로 내수시장 규모는 10억-13억리터로 추정되며 2008년에는 바이오디젤을 사용함으로써 10억달러의 디젤연료 수입대체 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초부터는 바이오디젤이 2% 혼합된 <B2 디젤> 판매를 통해 디젤 수입의존도를 7%에서 4%로 낮추고 6월부터는 혼합비율을 3%로 높인 <B3 디젤>을 판매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1/07>